

WITH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주)코아칩스의 상생 이야기



오늘의 안전, 내일의 안녕을 생각한 기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스무개가 넘는 센서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나요? 센서는 주변 곳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컴퓨터에도, 자동차에도, 우리집 현관등에서도 센서를 찾아볼 수 있죠.

문제는 '전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원이 있다는 건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센서의 전원은 OFF.

10여 년의 연구 끝에 (주)코아칩스는 전원이 없는 무선 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끄고 켜는 장치가 없으니 더 이상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배전반과 같은 위험한 설비에도 코아칩스의 무전원·무선 센서 하나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기술 개발로 무궁무진한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는 코아칩스의 무전원·무선 센서 기술 개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